

<2016년 518문학상 동화부문 심사평>

심사위원 : 배봉기, 유은실

제12회 518문학상에 응모된 단편동화는 모두 51편이었다. 5·18을 소재로 하거나, ‘5·18정신’을 담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작품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응모자가 2010년 이후 발간된 아동문학 작품을 폭넓게 읽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소재주의에 빠진 글이 많았고, 환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어린 독자에게 선불리 수용과 화해를 강요하며 글을 마무리 하는 결말 또한 안타까웠다.

본심에 오른 작품은 총 4편으로, 「노란리본」, 「김순영 꽃」, 「설피달 그믐밤 손님」,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이었다.

「노란리본」은 5·18때 남편을 잃은 할머니가, 세월호로 짐작되는 배 침몰 사고로 손자를 잃는 이야기이다. 안정된 문장, 주인집 할머니와 세 들어 사는 가족이 서로를 보듬으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좋았다. 하지만 사건 구성의 작위성과 노란리본 장식으로 마무리되는 상투적인 결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었다.

「김순영 꽃」은 갑자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광주 외할머니 댁으로 온 아이를 화자로 한 동화다. 주인공 은별은 외할머니네 다락방에서 시간이 역전된 판타지의 시공간, 곧 5·18직전으로 간다. 거기서 어린이가 된 엄마와 함께 이모의 죽음을 막아보려 애쓴다. 5·18상황을 자세하게 그린 게 장점인 동시에 상황 설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작품의 서사를 늘어지게 만든 점이 안타까웠다.

「설피달 그믐밤 손님」은 대를 물려 쓰는 특별한 바늘로 귀신 옷을 꿰맨다는 설정, 터줏대감을 특별한 바늘로 꿰맨 이불로 협박하는 부분이 신선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철거라는 첨예한 문제를 귀신의 초능력으로 해결하는 설정이, 자칫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어린 독자에게 던질까 염려스러웠다.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과 터줏대감의 초능력을 결합한 부분도 작위적이었다.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은 역사동화다. 갑오농민 혁명을 시간적 배경, 덕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수백 년 후에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동학군들의 이야기는 진중한 울림을 준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가 허술한 부분, 어색한 대사와 표현이 적잖이 눈에 띄는 것이 안타까웠다. 더 치밀한 자료 조사와 현대역사동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창작의 시간을 거치면 좋은 장편역사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다.

두 심사위원은 「김순영 꽃」과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을 최종심에 올리고 고민한 끝에, 「김순영 꽃」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1980년 5월로 어린 독자를 데려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과 당선자 모두의 정진을 빈다.